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

황명진*·정승환**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평균수명 예측결과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관련 자료 및 인구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청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예측평균수명을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전망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계청의 예측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었다.

핵심단어: 베이비붐, 고령화 현상, 장래인구추계, 평균수명예측

I. 서론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성인의 비율이 11%를 넘었다. (통계청, 2010). 이른바 고령화 사회를 지나 7년 뒤인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6년 이르면 고령자의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게다가 지금의 노인인구와 관련해서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윗세대의 부양과 자녀세대의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문대학 사회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mojihwang@korea.ac.kr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경제통계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을 책임지는 세대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 타 세대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들의 은퇴와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김영민, 2006; 김태현 외, 2007; 최성재·장인협, 2003; 황명진, 2010).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2011년 현재 48세~57세이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로 약 71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른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과 소비력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구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2.1) 이하의 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들의 은퇴 이후 노후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이철선, 2009; 이철용·윤상하, 2006).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험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내에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김명중, 2007; 삼성경제연구소, 2007; 임춘식, 2001; 이철선, 2009; 황명진, 2010; Berg, 1981; Bouvier, 1991; Poulos, 1997).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관련 사회, 경제정책들은 통상 동태자료를 집계한 현시점에서 인구통계,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추계(projection)자료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 중 미래의 인구구조를 제공하는 추계자료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2006년 통계청에서 작성된 인구추계결과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예측된 평균수명(0세 기대수명)의 경우 사후비교에서도 실제 경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러나 개발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점검해보는 것 보다는 과소추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통계청의 예측평균수명과 최근 연구결과에 의한 예측평균수명 비교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재평가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대

여명을 이용하여 평균수명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새롭게 연구된 사망확률과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를 실시하여 기존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평균수명 문제점들을 짚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새로운 연구들에서 제공되는 생명표 관련 결과들을 살펴보고 통계청에서 제공된 결과들과 비교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특정세대의 평균수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계청의 평균수명, 새로운 평균수명에 의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계산·정리할 것이다. 5장 베이비붐 세대의 장래인구를 전망하였으며,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II. 기존의 평균수명 통계에 대한 평가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을 지칭하며 국가의 보건수준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식통계였던 타인지 지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에 관한 정승환·김기환(2011)의 연구에서는 과거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수명들을 평가하였다. <표 1>은 정승환·김기환(2011)의 연구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추계 상의 예측평균수명과 실제 당해 연도의 경험평균수명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경험치는 실제 2000~2008년 남녀 전체의 경험평균수명을 나타낸다. 이 경험평균수명을 1996년 추계~2005년 특별추계에서 예측한 평균수명이 각각 74.85세, 76.11세~77.9세가 된다. 2005년 특별추계까지 실제 경험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불과 1년의 시차가 있는 2005년 추계와 2006년 경험치에서도 평균수명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0년 ~ 2030년에 해당하는 값들은 각 추계에서 예측한 평균수명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15년 예측평균수명과 2008년 실제 경험평균수명 간에 0.5세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최근 들어 통계청에서 작성된 예측평균수명이 과거에 작성하였던 예측평균수명과는 다르게 실제평균수명과 차이가 줄어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평균수명 예측 값이 실제 경험치보다 낮게 예측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는 가능성은 낮지만 통계청의 평균수명 작성 과정에 구조적인 오류가

<표 1> 과거 장래인구추계에서의 예측평균수명과 실제 경험평균수명 비교

경험치	2005	2006	2007	2008	2010	2015	2020	2030
	78.63	79.18	79.56	80.08				
1996 추계	74.85	76.1			76.99	77.48	78.08	78.95
2001 추계		77.7			78.78	79.73	80.73	81.53
2005 추계		77.9			79.06	80.08	81	81.9
2006 추계					79.6	80.55	81.45	83.13

포함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승환·김기환(2011)은 그들의 연구에서 1999년까지의 남녀별 사망률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2008년 남녀별 평균수명을 예측하여 실제경험평균수명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이때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은 평균수명의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Lee-Carter(이후 LC) 모형과 LC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세 가지 방법 총 네 가지 모형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2>의 내용을 보면 예측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2000~2008년까지 실제평균수명과 예측평균수명 간에 눈에 띄는 차이 없이 매우 흡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즉, 통계청이 발표한 예측평균수명이 모형의 적용(LC모형의 경우는 통계청에서 사용한 모형과 동일하다)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한 예측평균수명보다 실제평균수명과 일치성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정승환·김기환(2011)은 Lee와 Miller가 지적했던 전문가 의견의 비관적 편의(pessimistic bias of expert opinion)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수명의 예측값이 담당 실무경험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 실제보다 낮게 예측되는 경향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3>은 <표 2>에 포함된 예측모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2000~2008년 남녀 별 실제평균수명과 예측평균수명 비교

		2000	2002	2004	2006	2008
남성	실제평균수명	72.25	73.40	74.51	75.74	76.54
	LC	72.92	73.99	75.08	76.20	77.36
	LM	72.78	73.75	74.74	75.75	76.78
	BMS	73.00	74.07	75.17	76.30	77.47
	HU	73.11	74.39	75.58	76.56	77.83
여성	실제평균수명	79.60	80.45	81.35	82.36	83.29
	LC	80.26	81.02	81.77	82.49	83.21
	LM	80.14	80.85	81.55	82.24	82.91
	BMS	80.40	81.16	81.91	82.64	83.36
	HU	80.29	80.96	81.65	82.41	83.23

<표 3> LC 모형과 개선모형들의 특성

LC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명료한 구조로 적용이 간단하며, 사망률 예측 용이 - 예측력도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측기법 - 적용상에서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며, 여러 개선 모형들이 제안되었음
LM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스 이후 새로운 추계를 시작하는 연도에서 발생하는 편의(jump-off bias) 제거를 목적으로 제안 됨 - LC 모형과 달리 적합과정의 조정을 위하여 평균수명을 사용
BMS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 모형처럼 적합과정의 개선을 총사망자수로 하는 경우 연령별 사망자수 분포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적합과정 중 조정을 연령별 사망자수로 하여 왜곡을 회피
HU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모수 평활기법(nonparametric smoothing)을 이용한 원자료의 평활을 포함 - 비정칙치분해로부터 얻어지는 주성분 중 두 개 이상의 주성분을 사용하여 첫 번째 주성분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

III. 예측평균수명의 비교

2장의 내용으로부터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예측평균수명은 과소예측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변화를 추계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선된 평균수명과 이에 따른 사망확률이 필요하다. <표 4> 역시 정승환·김기환(2011)의 연구 중에서 편의상 남성의 평균수명을 발췌한 것이다.

<표 4>는 통계청의 평균수명 예측결과와 2장에서 설명하였던 네 가지 모형과 HP8 모형에 의해 예측된 평균수명을 비교하고 있다. 통계청의 결과와는 달리 2010년~2030년까지 연도별 예측평균수명을 제공하고 있다. 예측된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모두 통계청의 결과보다 평균수명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 표의 원 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 LC~HU 모형의 예측결과는 90년대의 급격한 평균수명의 증가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얻어진 것이므로 과대예측 되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HP8에 의한 예측결과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HP8 a모형은 사망률을 모형화 하고 예측하는 LC 모형 및 개선 모형들과는 달리 5세 단위의 사망확률을 1세 단위의 사망확률로 확장해주는 방법이다. HP8 모형은 총 8개의 모수로 구성되며, 이 8개의 모수를 이용하여 로그사망확률을 적합하게 된다. HP8의 모형과 이를 활용한 사망확률의 예측에 관해서는 김기환·정승환(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 예측평균수명 비교(남성)

	추계	LC	LM	BMS	HU	HP8
2010	76.15	78.25	78.16	77.97	78.18	77.14
2011		78.77	78.66	78.43	78.70	77.52
2012		79.30	79.16	78.89	79.20	77.91
2013		79.82	79.66	79.36	79.74	78.30
2014		80.36	80.17	79.82	80.26	78.71
2015	77.11	80.90	80.69	80.28	80.78	79.11
2016		81.45	81.21	80.74	81.30	79.54
2017		82.00	81.74	81.21	81.83	79.96
2018		82.56	82.27	81.67	82.40	80.39
2019		83.13	82.81	82.14	83.00	80.83
2020	78.04	83.71	83.36	82.61	83.65	81.27
2021		84.30	83.92	83.08	84.32	81.71
2022		84.90	84.49	83.55	85.00	82.15
2023		85.51	85.06	84.03	85.64	82.59
2024		86.13	85.65	84.51	86.22	83.02
2025	78.93	86.76	86.24	84.99	86.73	83.42
2026		87.41	86.85	85.48	87.20	83.82
2027		88.07	87.47	85.98	87.67	84.17
2028		88.74	88.10	86.47	88.18	84.48
2029		89.43	88.75	86.98	88.77	84.76
2030	79.79	90.13	89.41	87.48	89.45	84.99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71~2003년, 5세 단위 사망확률을 1세 단위 사망확률로 확장하는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를 위하여 <표 4>에 제시된 HP8 모형의 예측평균수명 작성에 사용된 사망확률을 사용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인구추계는 성별, 연령별로 2030년까지 예측하여 통계청의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지만, 그전에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규모나 성격에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만의 현재까지의 평균수명, 예측평균수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증가에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IV.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 기여도 계산

〈표 4〉에 나와 있는 예측평균수명을 통계청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청의 과소예측 뿐 아니라 HP8을 포함한 나머지 결과들의 과대예측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를 고려한다면 이를 다른 방향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연령별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복지혜택의 대규모 수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남녀 평균수명과 예측평균수명을 고려해 볼 때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영향으로 최근 30년간의 평균수명 증가속도는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통계청이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평균수명을 기반으로 작성된 연금, 보건, 보험, 복지정책들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수명 증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장래예측평균수명에 대한 평가를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두 인구집단의 기대여명 차이가 어떤 연령대의 사망률 차이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 기대여명의 차이를 분해하는 방법은 continuous approach(Pollard, 1982)와 discrete approach (Arriaga, 1984)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discrete approach가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준다는 것은 Pollard(1988)가 증명하였다. 식(1)은 연령구간 $[x, x+n]$ 에서 두 인구집단 간 기대여명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두 인구집단 사망률 차이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식이다. 식(2)는 생명표 마지막 연령구간(open-ended age interval)에 적용되는 식을 나타낸다.

$${}_n\Delta_x = \frac{l_x^1}{l_0^1} \cdot \left(\frac{{}_nL_x^2}{l_x^2} - \frac{{}_nL_x^1}{l_x^1} \right) + \frac{T_{x+n}^2}{l_0^1} \cdot \left(\frac{l_x^1}{l_x^2} - \frac{l_{x+n}^1}{l_{x+n}^2} \right) \quad (1)$$

$${}_{\infty}\Delta_x = \frac{l_x^1}{l_0^1} \cdot \left(\frac{T_x^2}{l_x^2} - \frac{T_x^1}{l_x^1} \right) \quad (2)$$

여기서 $l_x^1, {}_nL_x^1, T_x^1$ 는 첫 번째 인구집단의 생명표 함수들이고, $l_x^2, {}_nL_x^2, T_x^2$ 는 두 번째 인구집단의 생명표 함수들이다. 식(1)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rac{l_x^1}{l_0^1} \cdot \left(\frac{{}_nL_x^2}{l_x^2} - \frac{{}_nL_x^1}{l_x^1} \right) : \text{평균수명 관점에서 } [x, x+n] \text{의 직접적인 사망률 차이}$$

$$-\frac{T_{x+n}^2}{l_0^1} \cdot \left(\frac{l_x^1}{l_x^2} - \frac{l_{x+n}^1}{l_{x+n}^2} \right) : \text{평균수명 관점에서 } [x, x+n] \text{의 간접적인 사망률 차이}$$

식 (2)는 마지막 연령구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직접적 효과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두 인구집단 사이에서의 평균수명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_0^o(2) - e_0^o(1) = \sum_x {}_n\Delta_x$$

<표 5> KOSIS 간이생명표 분석결과 (1971-2009년, 남자)

연령	l_x^{1971}	${}_nL_x^{1971}$	T_x^{1971}	l_x^{2009}	${}_nL_x^{2009}$	T_x^{2009}	${}_n\Delta_x$	Percent
0	100000	96576	5895418	100000	99695	7699475	2.85	15.8%
1	95925	380530	5798842	99626	398305	7599780	0.90	5.0%
5	94642	470356	5418312	99539	497482	7201475	0.74	4.1%
10	93501	465513	4947956	99455	497098	6703993	0.47	2.6%
15	92704	460530	4482442	99379	496458	6206895	0.66	3.6%
20	91427	452937	4021912	99185	495264	5710437	0.80	4.4%
25	89724	444810	3568975	98902	493615	5215173	0.60	3.3%
30	88202	436930	3124164	98531	491526	4721558	0.58	3.2%
35	86524	427590	2687234	98068	488830	4230032	0.63	3.5%
40	84407	414918	2259644	97415	484570	3741202	0.76	4.2%
45	81357	395864	1844727	96333	477743	3256632	1.04	5.7%
50	76656	366637	1448863	94638	467152	2778889	1.38	7.6%
55	69565	324535	1082226	92080	452211	2311737	1.67	9.2%
60	59833	270395	757691	88637	431663	1859526	1.66	9.2%
65	48055	208665	487296	83746	401593	1427863	1.36	7.5%
70	35324	144845	278631	76399	356217	1026270	0.97	5.4%
75	22721	84704	133786	65431	291075	670053	0.61	3.4%
80	11579	36897	49082	50223	205082	378978	0.29	1.6%
85	3954	10286	12185	31612	114150	173896	0.08	0.5%
90	794	1734	1899	14827	45689	59746	0.01	0.1%
95	97	161	165	4658	11960	14057	0.00	0.0%
100+	6	4	4	891	2097	2097	0.00	0.0%
합계							18.04	100.0%

1.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영향

KOSIS에서 제공하는 1971년과 2009년 간이생명표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정리하였으며,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구간이다. 참고로 <표 5>에서는 편의상 남성부분만 제시하였다.

<표 5>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l_x^{1971}, {}_nL_x^{1971}, T_x^{1971}, l_x^{2009}, {}_nL_x^{2009}, T_x^{2009}$: 1971년, 2009년 생명표 항목.
- ${}_n\Delta_x = \frac{l_x^{1971}}{l_0^{1971}} \cdot \left(\frac{{}_nL_x^{2009}}{l_x^{2009}} - \frac{{}_nL_x^{1971}}{l_x^{1971}} \right) + \frac{T_{x+n}^{2009}}{l_0^{1971}} \cdot \left(\frac{l_x^{1971}}{l_x^{2009}} - \frac{l_{x+n}^{1971}}{l_{x+n}^{2009}} \right)$
: 연령구간 $[x, x+n]$ 에서 두 인구집단(1971 & 2009년 생명표) 간 기대여명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두 인구집단 사망률 차이에 대한 효과.
- ${}_{\infty}\Delta_x = \frac{l_x^{1971}}{l_0^{1971}} \cdot \left(\frac{T_x^{2009}}{l_x^{2009}} - \frac{T_x^{1971}}{l_x^{1971}} \right)$: 마지막 연령구간(100+) 적용 식.
- $e_0^o(2009) - e_0^o(1971) = \sum_x {}_n\Delta_x$: 1971년과 2009년 간 평균수명 차이.

<표 5>에서 1971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수명 증가(남자-18.04세, 여자-17.49세 증가)에 있어서 남자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은 전체 중 10.4%였고, 분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자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도 유사하게(10.1%) 나타났다(부록참고).

2.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평균수명 증가의 영향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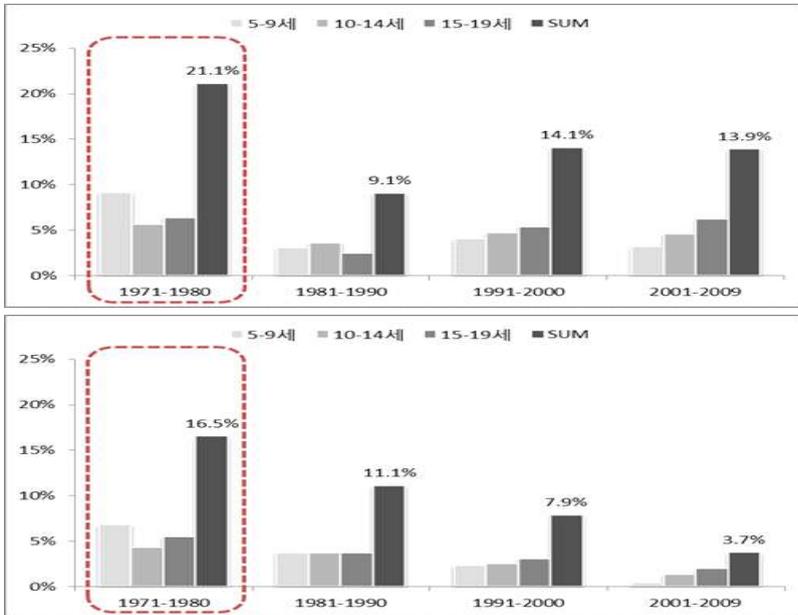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영향력 비교를 위해 KOSIS에서 제공하는 간이생명표를 이용하여 10년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비교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6>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 비교 - 10년 주기

남자 (연령)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9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5	0.26	9.1%	0.16	3.1%	0.17	4.0%	0.13	3.2%
10	0.16	5.6%	0.18	3.6%	0.20	4.7%	0.19	4.6%
15	0.18	6.4%	0.13	2.5%	0.23	5.3%	0.26	6.2%
합계		21.1%		9.1%		14.1%		13.9%

여자 (연령)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9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5	0.28	6.8%	0.18	3.7%	0.08	2.3%	0.02	0.4%
10	0.17	4.3%	0.18	3.7%	0.08	2.5%	0.05	1.3%
15	0.22	5.5%	0.18	3.7%	0.10	3.1%	0.07	2.0%
합계		16.5%		11.1%		7.9%		3.7%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 10년 주기 비교 (상-남자, 하-여자)



$n\Delta_x$ 는 두 시점(1971~1980년)에서의 평균수명의 증가에 해당 연령구간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6>에서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는 1971~1980

년 동안 평균수명이 2.89세 증가하였는데, 이 중 5~9세 연령구간에서는 2.89세 중 0.26세를 차지한 것이고, 10~14세 연령구간에서는 2.89세 중 0.16세, 15~19세 연령구간에서는 2.89세 중 0.18세를 차지한 것이다. Percent는 평균수명 차이에 미치는 영향 중 해당 연령구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1971년에 베이비붐 세대는 8~16세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령구간만을 <표 6>에 정리하였다. 남자의 경우 1971~1980년 동안 평균수명이 증가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미치는 영향은 21.1%, 여자의 경우 16.5%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10년 주기의 동일한 연령구간의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동일한 연령구간들의 다른 10년 동안의 영향력은 각각 9.1%, 14.1%, 13.9%로 나타나 21.1%에 비해 작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여자의 경우 각각 11.1%, 7.9%, 3.7%로 나타나 16.5%에 비해 역시 작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7>은 <표 6>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한 표로 10년 주기에서 20년 주기로 변환하여 정리한 표이다. 남자의 경우 1971~1990년 동안 평균수명이 증가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미치는 영향은 13.8%, 여자의 경우 13.6%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주기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20년 주기의 동일한 연령구간의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동일한 연령구간들의 다른 20년 동안의 영향력은 각각 10.1%, 10.7%로 나타나 13.8%에 비해 작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여자의 경우 각각 9.4%, 3.9%로 나타나 13.6%에 비해 역시 작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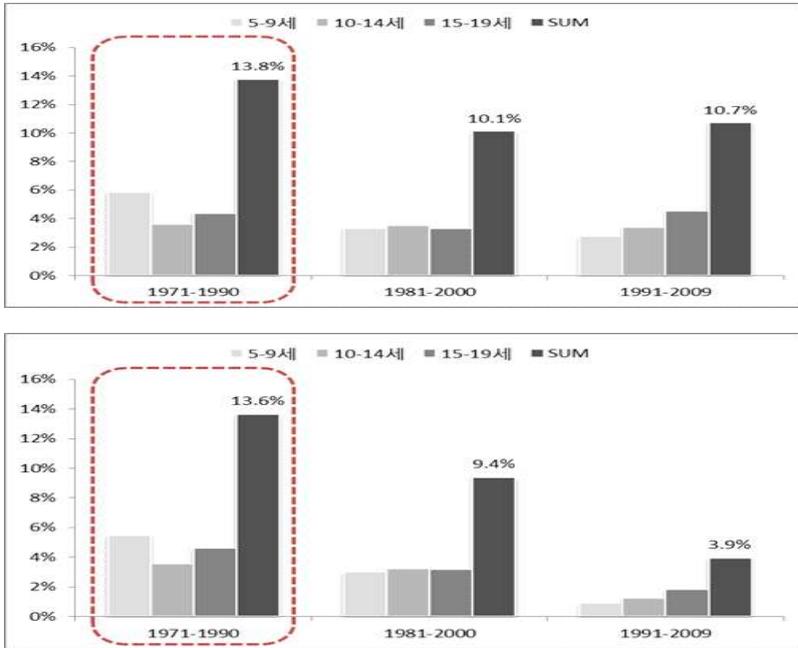
<표 8> 역시 <표 6>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한 표로 10년 주기에서 30년 주기로 변환하여 정리한 표이다. 남자의 경우 1971~2000년 동안 평균수명이 증가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미치는 영향은 12.2%, 여자의 경우 12%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20년 주기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30년 주기의 동일한 연령구간의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동일한 연령구간들의 다른 30년 동안의 영향력은 8.7%로 나타나 12.2%에 비해 작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여자의 경우 6.9%로 나타나 12%에 비해 역시 작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 비교 - 20년 주기

남자 (연령)	1971-1990		1981-2000		1991-2009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5	0.50	5.8%	0.33	3.3%	0.25	2.8%
10	0.30	3.6%	0.35	3.5%	0.31	3.4%
15	0.37	4.4%	0.32	3.3%	0.41	4.5%
합계		13.8%		10.1%		10.7%

여자 (연령)	1971-1990		1981-2000		1991-2009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5	0.52	5.5%	0.26	3.0%	0.07	0.9%
10	0.34	3.6%	0.28	3.2%	0.09	1.2%
15	0.44	4.6%	0.28	3.2%	0.14	1.8%
합계		13.6%		9.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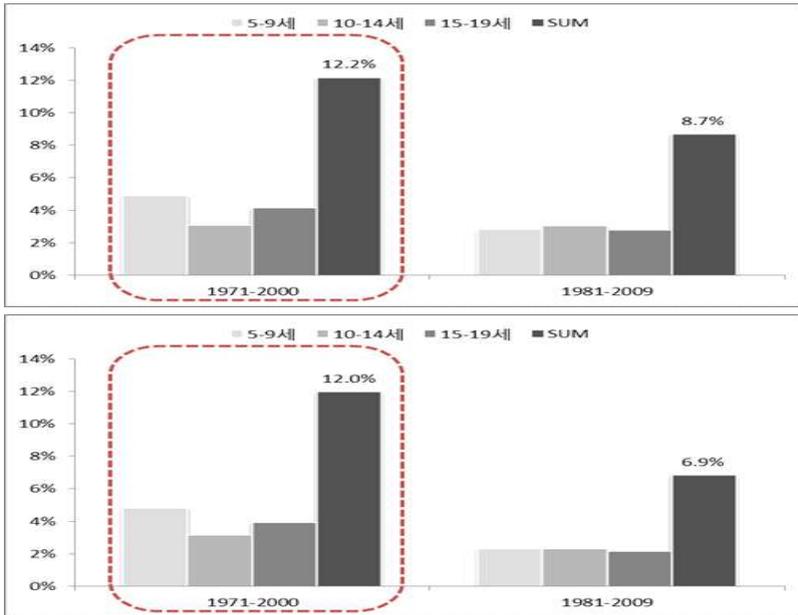
<그림 2>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 20년 주기 비교(상-남자, 하-여자)



<표 8>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 비교 - 30년 주기

연령	남성				여성			
	1971-2000		1981-2009		1971-2000		1981-2009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n\Delta_x$	Percent
5	0.65	4.9%	0.42	2.8%	0.64	4.9%	0.30	2.3%
10	0.41	3.1%	0.45	3.1%	0.42	3.2%	0.30	2.3%
15	0.55	4.2%	0.41	2.8%	0.53	4.0%	0.28	2.2%
합계		12.2%		8.7%		12.0%		6.9%

<그림 3>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 30년 주기 비교(상-남자, 하-여자)



V. 2011~2030 성별, 연령별 베이비붐 세대의 예측

2006 장래인구추계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과소전망 되었을 가능성이 큰 반면, 4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 4>의 HP8의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를 새롭게 전망해 보았다. 전망기간은 2011년~2030년이며, 전망을 위하여 인구동태요인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출생 : 2011~2030년 사이의 출생아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망 : 연령별, 성별 사망률의 <표 10>, <표 11>에 제시된 사망확률 사용.
- 국제이동 : 국제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기준인구 : 우리나라 공식인구인 추계인구의 2010년 성별, 연령별 결과를 사용.

베이비붐 세대의 전망을 위한 가정에서 출생아수를 통계청 추계의 0세인구로 사용하고, 연령의 마지막 구간을 95세 이상을 제한하여 사망률을 적용하면 2010년~203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전망할 수 있다.

<표 9> 2010~2030 65세 이상 인구비율 전망

	통계청 2006 인구추계				HP8 모형에 의한 추계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2010	11.0%	7.3%	4.1%	1.9%	11.0%	7.3%	4.1%	1.9%
2011	11.3%	7.6%	4.4%	2.1%	11.3%	7.6%	4.4%	2.1%
2012	11.7%	7.9%	4.6%	2.2%	11.8%	8.0%	4.7%	2.3%
2013	12.1%	8.3%	4.9%	2.4%	12.2%	8.4%	5.0%	2.4%
2014	12.6%	8.5%	5.1%	2.6%	12.7%	8.7%	5.3%	2.6%
2015	12.9%	8.7%	5.4%	2.7%	13.2%	9.0%	5.6%	2.8%
2016	13.4%	9.0%	5.6%	2.9%	13.7%	9.3%	5.9%	3.1%
2017	13.8%	9.3%	5.9%	3.1%	14.2%	9.7%	6.2%	3.3%
2018	14.3%	9.7%	6.2%	3.3%	14.8%	10.1%	6.5%	3.5%
2019	14.9%	10.1%	6.3%	3.4%	15.5%	10.6%	6.8%	3.8%
2020	15.6%	10.4%	6.5%	3.6%	16.2%	11.0%	7.0%	4.0%
2021	16.4%	10.7%	6.7%	3.8%	17.1%	11.4%	7.3%	4.3%
2022	17.2%	11.1%	7.0%	4.0%	18.0%	11.9%	7.7%	4.5%
2023	18.0%	11.6%	7.3%	4.2%	18.9%	12.4%	8.0%	4.8%
2024	18.9%	12.1%	7.5%	4.3%	20.0%	13.1%	8.4%	5.0%
2025	19.9%	12.7%	7.8%	4.4%	21.0%	13.8%	8.8%	5.2%
2026	20.8%	13.3%	8.1%	4.5%	22.1%	14.6%	9.2%	5.4%
2027	21.8%	14.0%	8.4%	4.7%	23.1%	15.4%	9.6%	5.7%
2028	22.6%	14.8%	8.7%	4.9%	24.1%	16.3%	10.1%	6.0%
2029	23.5%	15.6%	9.2%	5.1%	25.0%	17.2%	10.6%	6.3%
2030	24.3%	16.5%	9.7%	5.3%	25.9%	18.2%	11.2%	6.6%

〈표 10〉 2010~2029년 남성 사망확률 전망치(HP8, 베이비붐 세대-음영)

	2010	2012	2014	2016	2018
47	0.0033	0.0030	0.0027	0.0025	0.0022
49	0.0040	0.0037	0.0034	0.0030	0.0027
51	0.0046	0.0042	0.0038	0.0034	0.0031
53	0.0056	0.0051	0.0046	0.0042	0.0038
55	0.0060	0.0055	0.0050	0.0046	0.0041
57	0.0073	0.0068	0.0062	0.0056	0.0051
59	0.0089	0.0082	0.0075	0.0069	0.0062
61	0.0100	0.0093	0.0085	0.0078	0.0070
63	0.0122	0.0113	0.0104	0.0095	0.0086

	2020	2022	2024	2026	2028
57	0.0033	0.0030	0.0027	0.0025	0.0022
59	0.0040	0.0037	0.0034	0.0030	0.0027
61	0.0046	0.0042	0.0038	0.0034	0.0031
63	0.0056	0.0051	0.0046	0.0042	0.0038
65	0.0060	0.0055	0.0050	0.0046	0.0041
67	0.0073	0.0068	0.0062	0.0056	0.0051
69	0.0089	0.0082	0.0075	0.0069	0.0062
71	0.0100	0.0093	0.0085	0.0078	0.0070
73	0.0122	0.0113	0.0104	0.0095	0.0086

〈표 9〉는 전망결과를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나누어 통계청의 추계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표 9〉를 보면,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전망치가 통계청의 추계결과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차이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사망률예측 결과가 통계청의 전망결과와 차이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의 차이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기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전망의 가정 하에서 산출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인구는 〈표 11〉과 같다. 인구규모 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2006년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하였다. 2011년의 경우 통계청 추계결과는 7,104,001명이고 HP8에 의한 추계결과는 7,103,707명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2030년의 경우를 보면 통계청 추계결과는 6,133,525 명이고, HP8의 추계결과는 6,495,502 명으로 361,997명(5%)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30년 HP8에 의한 남녀 추계결과는 각각 3,111,136명, 3,384,366명으로 통계청의 2030년 추계결과 보다 남자의 경우 256,436명(9%), 여자의 경우는 105,541명(3.2%)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 중 여자보다는 남자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2011~203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전망 결과

연도	추계		
	합	남	여
2011	7,104,001	3,569,343	3,534,658
2013	7,056,568	3,530,697	3,525,871
2015	6,999,952	3,486,399	3,513,553
2017	6,929,999	3,433,564	3,496,435
2019	6,847,673	3,371,757	3,475,916
2021	6,753,645	3,300,913	3,452,732
2023	6,646,960	3,220,743	3,426,217
2025	6,525,354	3,130,754	3,394,600
2027	6,385,792	3,030,072	3,355,720
2029	6,224,287	2,916,813	3,307,474
2030	6,133,525	2,854,700	3,278,825

연도	HP8		
	합	남	여
2011	7,103,707	3,570,538	3,533,170
2013	7,058,732	3,535,706	3,523,026
2015	7,010,957	3,498,709	3,512,248
2017	6,960,381	3,459,627	3,500,754
2019	6,907,035	3,418,496	3,488,539
2021	6,849,493	3,374,386	3,475,106
2023	6,786,424	3,326,343	3,460,082
2025	6,716,882	3,273,743	3,443,139
2027	6,637,741	3,214,802	3,422,939
2029	6,546,595	3,147,996	3,398,599
2030	6,495,502	3,111,136	3,384,366

<표 12> 2011~2030년 남성 베이비붐 세대 예측인구(음영)

	2012	2014	2016	2018	2020
49	425,729	410,177	409,884	425,489	446,350
51	426,197	422,626	407,466	407,440	423,209
53	410,513	422,544	419,336	404,599	404,861
55	370,422	406,211	418,515	415,718	401,453
57	327,687	366,206	401,997	414,579	412,188
59	270,515	323,132	361,558	397,364	410,257
61	230,182	266,110	318,319	356,658	392,483
63	222,981	225,794	261,460	313,248	351,499
65	201,317	217,808	220,982	256,370	307,697

	2022	2024	2026	2028	2030
59	408,319	395,024	396,242	412,728	434,234
61	405,712	404,242	391,466	392,997	409,606
63	387,352	400,923	399,929	387,661	389,463
65	345,861	381,728	395,651	395,130	383,350
67	301,377	339,418	375,273	389,538	389,455
69	244,267	294,491	332,365	368,128	382,640
71	202,966	237,288	286,820	324,415	359,922
73	190,689	195,739	229,567	278,233	315,341
75	165,854	182,420	187,961	221,149	268,684

〈표 12〉는 2011년~2030년 48세~75세 남성 추계인구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연령별 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 결론

지금까지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평균수명이 다소 낮게 예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승환, 김기환(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1~2030년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새롭게 전망해보았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된 평균수명이 낮게 나왔다는 점은 곧 연령별 사망률이 실제보다 높게 예측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또한 낮게 전망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승환, 김기환(2011)의 연령별, 성별 사망률의 변화를 사용하여 인구규모를 새롭게 전망하였으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통계청 추계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망률예측결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20년 이후에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아 베이비붐 세대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전망한 가정 하에서 산출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출 결과와 200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전망한 인구가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다소 크게 전망되었다. 전망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으나 전망 후기로 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1~2030년까지 남녀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구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남성의 사망률 하락속도가 여성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승환, 김기환(2011)의 연구에서 반영하여 사망률을 전망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전망한 결과가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곧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향후 노년층의 사망률 감소속도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부분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영향력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멸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평균수명 및 인구규모를 비교적 크게 전망한 본 논문의 결과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의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원자료를 사용한 통계청의 인구추계와의 단순 비교는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같은 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기환, 정승환 (2006) “우리나라 생명표의 연령구간 확장 및 기대여명 예측” 《한국자료분석학회》 8: 1723-1733.
- 김기환, 정승환 (2011) “평균수명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 분석”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의료 관련 소비행태와 자산구성이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김명중 (2005)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3(9): 65-78.
- 김영민 (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헌, 장지연, 전광희, 양수경 (2007) 《한국고령화 진행과정의 중장기 예측》 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 (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 151-173.
-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 이철선 (200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소.
- 이철용, 윤상하 (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 임춘식 (2001) 《고령화 사회의 위기》 유평출판사.
- 정승환, 김기환 (2011) “평균수명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모형 비교연구” 《응용통계

연구》24(1): 115-125.

최성재, 장인협 (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통계청 (2010) “2010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황명진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계획에 관한 결정요인분석 연구” 《서울시 복지패널》 제1회 서울시복지재단 학술대회.

Arriaga, E. E. (1984), “Measuring and explaining the change in life expectancies”, *Demography* 21(1): 83-96.

Berger, Mack C. (1981) “The Effect of the Baby Boom on the Earnings Growth of Young Mal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Paper*.

Bouvier, Leon F. (1991) “The Baby Boom-Entering Midlife”, *Population Bulletin* 46(3): 1-38.

Poulos, Stacy. (1997) “The Aging Baby Boom: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U.S. Department of Labor*.

Pollard, J. H. (1982), “The expectation of life and its relationship to mortalit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ctuaries* 109: 225-240.

Pollard, J. H. (1986), “On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expectation of life and differentials in life expectancy”, *Demography* 25(2): 265-276.

[2011. 5. 1 접수 | 2011. 5. 25 심사(수정) | 2011. 5. 25 채택]

<부록 1> KOSIS 간이생명표 분석결과 (1971-2009년, 여성)

연령	l_x^{1971}	${}_nL_x^{1971}$	T_x^{1971}	l_x^{2009}	${}_nL_x^{2009}$	T_x^{2009}	${}_n\Delta_x$	Percent
0	100000	96685	6628434	100000	99725	8376540	3.07	17.5%
1	96007	380852	6531749	99661	398428	8276815	0.95	5.4%
5	94757	471318	6150897	99569	497708	7878387	0.72	4.1%
10	93770	467103	5679579	99518	497462	7380679	0.46	2.7%
15	93071	463054	5212476	99462	497055	6883217	0.59	3.3%
20	92087	456752	4749422	99350	496320	6386162	0.83	4.8%
25	90561	449067	4292670	99159	495149	5889842	0.71	4.1%
30	89067	441602	3843603	98895	493724	5394693	0.64	3.7%
35	87562	433791	3402000	98590	492078	4900969	0.62	3.6%
40	85920	424910	2968209	98226	490024	4408891	0.65	3.7%
45	83975	413903	2543299	97762	487291	3918867	0.74	4.2%
50	81467	399219	2129396	97121	483463	3431576	0.88	5.0%
55	78038	378936	1730178	96220	478088	2948113	1.05	6.0%
60	73285	351090	1351241	94938	470161	2470025	1.18	6.8%
65	66838	313959	1000152	92984	457480	1999864	1.20	6.9%
70	58372	265820	686193	89708	435122	1542384	1.10	6.3%
75	47522	205084	420373	83777	394293	1107262	0.90	5.2%
80	34093	132516	215289	73011	324461	712969	0.68	3.9%
85	18966	61903	82773	55633	223247	388508	0.37	2.1%
90	6789	17744	20870	33405	115643	165261	0.11	0.6%
95	1350	2856	3126	13992	40131	49618	0.02	0.1%
100+	141	270	270	3593	9487	9487	0.00	0.0%
합계							17.48	100.0%

The Ageing Society of Korea and the Population Estimate

Myung-Jin Hwang · Seung-Hwan Jung

The generation of babyboom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ciety in general. The Korean Babyboomers will soon leave from their workforce as they reach the retirement age. This, coupled with the low fertility rate, may caus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society at large as well as the social welfare issues among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The Central Statistical Systems have estimated the future projection which plays critical role to establish fundamental basi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n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babyboomers on the life expectancy by comparing forecasted life expectancie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the previous studies in the related areas. The study also suggested a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based on fertility rates provided, along with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babyboomers as they become ageing. The study result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population projection by the statistical office are provided.

Key Words: Babyboomers, Ageing society,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Life expectancy